



2011 여성주간 기념
티베트 여성 지도자 초청 간담회

린첸칸도 Rinchen Khando Choegyal

변화를 불러오는 새로운 파워, **생명 리더십을 말하다.**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가족으로 맞이한 것과 같다"며
"하나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방식이 가장 좋은 통치 방식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민주주의가 좋은 통치 방식이 되려면 리더가 생명력 있는 영성을 지녀야 한다. "
근대화 과정에서 좋은 리더는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근육의 승리는
오래전에 사라져 여성들은 더 이상 약한 존재라고 느낄 필요가 없다. 진정한
힘은 영성에서 나오고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량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린첸칸도의 강연 중 일부-

- **일시** : 2011년 7월 8일(금요일) 오후 7시 - 9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소담청사 3층(난실)
시청역12번출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오시면 미술관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 **참석** : 여성, 정치, 사회, 학계에서 활동 중인 여성리더 50분.
- **함께 하는 이** : 현경(유니온 신학대학 교수).
- **참가비** : 3만원(입금계좌: 국민은행 525201-01-052478
(사)문화세상이프토피아

※ 간담회 참가비는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전액 후원됩니다.

- 문의 : 02-717-9247 iftopia0217@hanmail.net
- 주최: (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 후원: 서울시 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문화세상 이프토피아는 티베트의 대표적 여성지도자 린첸칸도(Rinchen Khando Choegyol)의 방한을 맞아 여성리더들을 모시고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보는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급변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자신의 “true self를 바라보고 내면화하기, 관계성(자기이외의 관계성),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리더십을 갖기 위한 패러다임을 영성Spirituality를 통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spirituality는 모든 생명이 관계 맺고 있는 연결성,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연결되고 의존된다는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종교적인 것을 초월하는 감성적 경험으로 깨어진 균형을 회복시키고 삶을 재조명하기위해 현대의 리더들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부 린첸칸도님의 강연에 이어 2부에서는 현경교수(뉴욕 유니언 신학대학 교수) 와 함께 리더의 새로운 파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spirituality를 통해 생명 리더십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참석하신 분들과 대화를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리더로서의 새로운 파워를 찾고 재충전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행사 순서

19:00 시작 인사

19:10-20:00 <린첸칸도가 전하는 생명 리더십 강연>

20:00-20:10 휴식

20:10-21:00 <린첸칸도, 현경교수와 함께 나누는 대화>

21:00 마침 인사

* 간단한 다과와 음료, 동시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린첸 칸도 (Rinchen Khando Choegyol)



티벳 망명정부에서 장관이 된 두 번째 여성으로 1993년 내무부와 보건부 장관이 되었고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교육부 장관으로 10여 년간 정부내각에서 활동하였다.

장관이 되기 전 1984년에 티베트여성연합(TNA)을 창립하여 1993년까지 회장으로 봉사하여 여성, 어린이, 교육, 환경, 복지, 망명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티베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자각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1987년에 창설된 종교문화부 산하 티베트 여성수행자 프로젝트(Tibetan Nun Project)의 총재로 활동하면서 TWA와 함께 티베트 여성수행자들의 교육, 건강, 복지, 신앙과 수행을 돕는 지원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돌마람을 비롯한 3-4개의 여성수행 사원을 건립하여 난민여성수행자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부장적 종교 전통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수행자의 비구니로서의 지위를 확립함과 동시에 티베트에서의 최고 여성교육이라 할 수 있는 비구니교육의 체계를 세우는 일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해 미국에서 평화상을 받기도 했으며 티베트상황과 문화, 종교를 알리는 강연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막내동생인 켄도 최겔(Ngari Kendo Choegyol)린포체의 부인이기도 하다.

현경(Hyun Kyung)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 교수, 여성신학자.

학문, 사회운동, 영적수련,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통역사이자 여성, 평화운동가. 에코페미니스트, 이프토피아와 해마다 함께 하는 살림이스트 워크숍을 통해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삶의 지혜와 명상을 전하는 전도사이기도 하다.